

민주 “발목잡기 그만”... 한국당 “의원 총사퇴”

여야 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 처리 놓고 신경전 가열

문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비쟁점법안 120건 처리 합의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제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어져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비상식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흑세무민”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불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펴먹 쓰냐”라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크”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단 협상은 이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회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내용도 논의되지 않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의장 “패트 법안 다음달 처리”

여야 합의 안돼도 본회의 상정...국회 멈춰선 안돼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면서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토론의 부침)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문 의장이 이 같은 언급은 여야 간의 합의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국가 발전 핵심”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한·아세안 회의 준비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6~27일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미·중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촉진제이자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입지를 다지는 발판이라는 판단 아래 분위기를 끌어 올리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며 아세안과의 협력이 교역분야를 넘어 역대 평화 실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최근 남북관계의 흐름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며 청와대 참모진도 대체로 이런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가시적 진전사항이 나온 것은 없기”라며 “실무자를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



“민생경제 활력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회천 대표와 당지도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대표가 함께한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용주·정인화 “대안신당 안간다”

“3지대서 판 키워야”...대안신당 창당발기인 대회 차질

박주선·주승용 등 바른미래 호남의원들도 3지대 창당 준비

무소속 이용주 의원(여수 갑)과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대안신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연내에 신당을 출범시키겠다는 대안신당의 창당 작업에 길이 빠지는 모양새다. 당장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창당 발기인 대회의 차질이 예상된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안신당 창당 만으로 확률

을 찾기 어렵다”며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판을 크게 그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도 “지역 민심은 분열을 거듭해서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개혁성향 야권이 제3지에서 빅 텐트를 치고, 총선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인화·이용주 의원의 이탈에 대해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 신청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안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밤 긴급 회동을 갖는 등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창당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 창당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북구 을)은 “제3지대는 한번에 가능하지 않다”며 “일단 대안신당을 창당 한 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기존의 정치 세력들은 물론 외부 인사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제3지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두 분도 결국 제3지대 신당에서 함께 하게 될 것으로 믿는

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도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김관영, 임재훈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유승민 의원 등 당내 개혁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지는 대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적극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모 의원은 “현재의 편협하고 무능한 여권으로는 4기 개혁 정부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민심”이라며 “다음 달 초순 원탁회의를 가동, 1월 중순까지 호남 민심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보수 통합 ‘내우외환’

한국당 “유승민 안돼” 내부 반발...변혁은 선긋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의 보수통합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당에서 내부 반발이, 변혁에서 회의론이 표출되고 있다.

우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다른 강원지역 의원들과 함께한 황 대표와의 만찬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당시 만찬에서 “유승민 의원을 쫓기만 태워 데려오는 것은 보수도, 통합도 아닌 분열의 씨앗”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교안 대표가 변혁과의 논의를 추진할 보수 대통령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유승민 의원과의 신뢰 등의 이유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혁 내부에선 유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며 제시한 통합의 3대 원칙에 한국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판단하에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변혁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권은희 의원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신환 원내대표는 “논의가 진행되는 게 전혀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입당설이 제기됐던 바른미래당 출신 무소속 이인주 의원이 연내 ‘자유와 민주 4.0’(가칭)이란 이름의 신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보수진영 지형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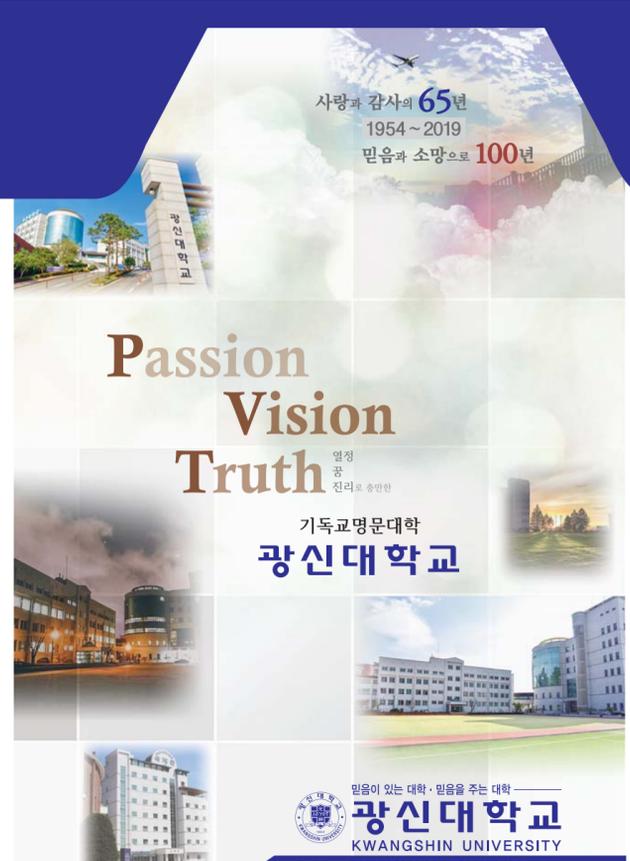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화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